



전공 역량 키우는 방학 회계실무 교육과 벽화 봉사 성료

우리 대학이 방학 기간을 맞아 재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맞춤형 교육과 전공 재능을 활용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잇달아 성료하며 교내외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이론 중심의 기존 교육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취업 자산이 되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는 환경 개선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등 실무와 상생을 두 축으로 한 행보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우선 학내 재학생 맞춤형 운영팀과 세무회계학과가 공동 주최한 학과 맞춤형 프로그램 회계실무 역량 강화 과정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간 도서관 502호에서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세무회계학과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회계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공인 자격증인 '회계 관리 1급' 취득률을 향상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자격시험 출제 기준에 맞춘 핵심 이론 학습을 비롯해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개인별 피드백 순으로 차례대로 제공됐다. 단기간 자격시험에 필요한 실전 감각을 집중적으로 다지는 데 중점을 둔 체계적인 구성이다.

재학생 맞춤형 운영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핵심 이론과 실전 문제 풀이를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학생들의 회계 이해도를 높이고 자격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라며 "성공적인 전공 역량 강화가 향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실적 향상과 취업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



▲ 방학 동안 실무 경험을 쌓은 세무회계학과 학생들

형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및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의실 안에서 전공 실무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 한편, 강의실 밖에서는 전공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뜻깊은 봉사 활동도 펼쳐졌다. 우리 대학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재학생 10명은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한길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우리 대학 학생지원처가 주관하는 '지역연계 협력네트워크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봉사가 진행된 한길지역아동센터와 한길교회를 잇는 통로는 평소 벽면이 어두워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과 구민들이 통행할 때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던 장소다. 이에 지역 기관으

로부터 환경 개선을 요청받은 생활가구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나섰다. 학생들은 전공 지식과 감각을 살려 다양한 디자인 스케치를 고안했으며, 이 중 센터 측이 직접 선택한 시안을 바탕으로 어두웠던 통로 벽면을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조숙경 교수는 "대학의 지역사회 책무를 이행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선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대 강화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가구디자인학과는 이번 한길지역아동센터 봉사 외에도 ▲놀이터지역아동센터 ▲햇님경로당 등 관내 여러 시설을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봉사를 지속해 오며 전공 기반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방학 동안 추진된 두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자격증 준비와 실무 경험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이 가진 인적·학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를 남겼다. 이처럼 강의실 안에서는 철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다지고, 강의실 밖에서는 전공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 대학의 선순환 교육 행보는 학우들에게 내 가 배우는 학문이 어떻게 내 미래가 되고,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꿈을 뒷받침하고 지역 상생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표진아 기자 treasureshine29@gmail.com

**'26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 개편(사전공표)

2027년 1학기부터
지급단위에 따라
(개편)
'가.나.다.라.마'
5구간 체계로
(현행)
10구간 체계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예정

내키! Keep
스키! Skip

신청기간
'26.8.12.(수) 9시 ~ 9.9.(수)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누리집
www.kosaf.go.kr

모바일 앱
Android iOS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6.8.12.(수) 09시 ~ 9.16.(수) 18시

✔ 가구원 동의 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②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③ 민간사 앱(헬로)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 서류 확인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국가장학금 신청문의
챗봇상담

Contents	
1 종합	전공 역량 키우는 방학
2 면 보 도	우리 대학 '2026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최종 선정
3 면 보 도	1)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7 면 특 집	대학생들의 희망 초봉
8 면 인터 뷰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 학회장 '정현우', 스포츠헬스케어학과 학회장 '최현서'

알 려 드 린 니 다	
• 8월 24일(월) ~ 9월 28일(월) :	2학기 등록 휴학 신청
• 9월 01일(화) ~ 9월 07일(월) :	2학기 전공 및 교양 수강신청 정정
• 9월 30일(수) ~ 10월 01일(목) :	제52회 용마문화축제



보도기사

우리 대학 '2026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최종 선정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사업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실전 인재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청년층에게 단기 집중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전환(AI) 시대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실전인재형 사업에는 전국 일반대학 10개교와 전문대학 10개교가 선정됐으며, 우리 대학은 지역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AI·DX 융합 교육모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은 2028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국고 지원을 받아 'AI+X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과 대학 졸업생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DX 실무역량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트렌드·콘텐츠 산업(디자인)'과 '경영·지식서비스 산업(세무회계)'의 AI 전환을 핵심 목표로 삼고 ▲AI Visual IP Content Track ▲AI Spatial Experience Track ▲AI 세무회계 AX Track 등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더불어 ▲생성형 AI 활용 교육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현장실습 ▲기업 멘토링 ▲인턴십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와 세무회계학과를 주관학과로 ▲디자인학부 ▲경영사회학부 ▲미디어예술학부 ▲글로벌외국어학부 ▲IT융합학부 ▲스마트융합학부 등 총 15



▲ 우리 대학 전경

개 학과가 참여한다. 또한 약 100개 협력기관과 연계해 교육과정 공동개발, 현장 프로젝트, 기업 멘토링 및 채용연계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RISE 사업 ▲신산업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경험과 약 800개 협력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한다. AI 실습실, GPU LAB, 생성형 AI 활용 환경 등 첨단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생들이 최신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일청년지원단'을 중심으로 교육생 모집부터 학습 관리, 진로 및 취업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마이크로디

그리(Micro-Degree) 인증을 제공하고 취업 컨설팅과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 백종관 산학협력처장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시대에 청년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의 성장과 취업을 지원하는 AI·DX 인재양성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나정 기자 najung071107@gmail.com

기획보도 1

우리 대학, AI 교육혁신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인공지능 분야 교육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리 대학은 2024년 9월 디지털·인공지능 분야 특화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교육혁신과 신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과 현장 중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연차평가의 3개 영역(▲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체계 운영과 성과관리실적 ▲재정집행실적)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 RISE 정책과 연계해 지역 구성원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지역 고교생 대상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대표 과제인 ▲Exss Micro Module은 이론·실습·프로젝트를 연계한 교육 모듈로 AI 전문가 과정과 Game 전문가 과정 등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와 학습 몰입도를 높였으며, ▲산업체 연계 공동 기자재 활용 ▲성과관리시스템(EIS)과 챗봇 시스템 공유 ▲학점교류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대학 신산업사업단은 앞으로도 AI·게임 융합 고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 및 산업체와 협력해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현장 견학

이가인 기자 vvv.n00@gmail.com

기획보도 2

수도전기공고-우리 대학,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

우리 대학과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용노동부 주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 대학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직업계고등학교 학

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기업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및 피드백 ▲에너지 공기업 맞춤형 면접 질문 준비 및 대응 컨설팅 등 학생들의 에너지 공기업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학생들의 선호 취업처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사업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명호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처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오선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취업 지원 인프라를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수도전기공고 학생들이 에너지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ydd21112@gmail.com



▲ 업무협약 체결

심층보도



최저임금과 수습 기간

알바 전 꼭 챙길 최저임금과 수습 기준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 권리임에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학우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수습 기간 임금 감액 적용의 정확한 법적 기준을 짚어본다.

대학생들의 일상에서 아르바이트는 생활비 마련과 사회 경험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근로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과 수습 기간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임금체불 신고 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무지가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2026년 기준 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이는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간당 임금의 최저 기준이며,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많은 학생이 가장 혼란을 겪는 대목은 수습 기간의 임금 감액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



▲ 매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알바몬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적법하다.

특히 ▲편의점 스태프 ▲패스트푸드점 서빙 ▲매장 청소 ▲단순 배달 등 고용노동부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을 1년 미만(6개월, 3개월 계약 등)으로 설정하였을 때 역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 법적으로 수습 감액 비율은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된 임금 깎기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시리즈 순서

- 1) 최저임금과 수습 기간
- 2)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 4) 알바의 4대 보험



더불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었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

수습 기간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역시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겪는 피해 중 하나다. 수습 기간이라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엄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업무 능력 부족이나 적응 문제 등 합리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이라면 채용 공고나 면접 당시의 설명만 믿기보다,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수습 기간 감액 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출퇴근 기록 ▲임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키는 첫걸음은 법이 보장하는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박상현 기자 tkdus1384@gmail.com

학생의 목소리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벌써 9월달로 개학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모두 2학기 파이팅해요!

- 보내는 사람: 익명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2학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힘들시기일텐데 모두에게 행운이 있으면 합니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노래 추천합니다!

- 보내는 사람: 익명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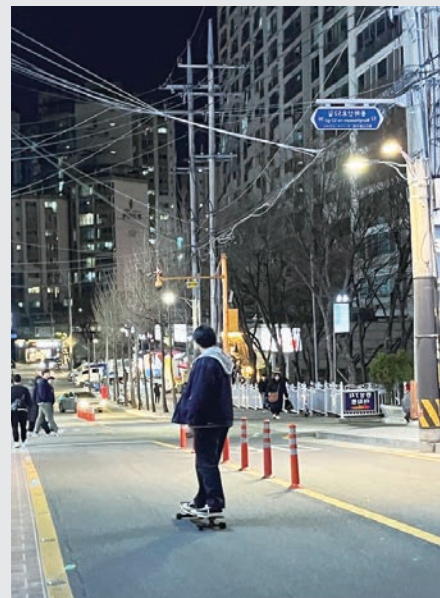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확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INTERVIEW

추석 연휴를 보내는 나만의 노하우는?

추석 연휴를 보내는 나만의 노하우는 특별할 것 없이, 평소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평소에 미뤄두었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가족들과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읽지 못했던 책이나 보고 싶었던 OTT 콘텐츠를 천천히 즐긴다. 단순히 친구를 만나거나 릴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편이다. 그래야 연휴가 끝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25학번 박지안

지역사회



중랑구 마음건강상담소 서울시 약자동행 우수사례 선정

아동, 청소년, 청년 특화 심리 회복 프로그램

중랑구가 추진 중인 '주민 마음 돌봄 마음 온(ON) 서비스'가 2026년 서울시 약자 동행 성과평가에서 의료·건강 부문 우수정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러 후보 가운데 중랑구를 포함해 총 22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지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중랑구 토닥토닥 마음건강 상담소에서 전개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 특화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다. 지역 중·고등학교 위(Wee)클래스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 학생을 선제 발굴하고 통합 운영회의를 거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으로 연계해 전문 치료를 돕는 구조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는 2018년부터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1급 자격을 갖춘 전문 심리상담사가 진행하며 ▲1대1 심리상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 ▲스트레스 관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 한 명당 최



▲ 중랑구가 운영하는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의 입구

대 8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 상태를 정밀하게 살핀다. 실제 이용자 분석 결과 만족도는 95%로 집계됐으며, 상담 후 부정적 감정이 평균 33.2%, 우울감은 41.3% 감소해 실질적인 정서 안정 효과를 입증했다.

현재 상담소는 신내점과 망우점 등 2곳을 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가 직영하는 마음건강 상담시설 중 최대 규모다. 전문 기관으로 연계된 이후에도 상담소 측에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사후 사례 관리까지 뒷받침한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중랑구보건소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전화 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돌봄 수요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이번 우수정책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도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서일소식

우리 대학 위탁운영 센터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 시행



▲ '채소랑 놀자'를 진행하는 모습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 중인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6월 관내 등록 어린이급식소 5개소에서 당류 저감 실천을 위한 체험형 영양 교육 프로그램 '채소랑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특화 사업 '무럭무럭: 잘 먹고 잘 크는 우리 아이 채소랑 놀자(당류 줄이기 편)'의 일환으로, 영유아기의 증가하는 당류 섭취 문제에 주목해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 실천 교육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부모에게는 유아기 저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정 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저당 간식 레시피 등을 소개해 일상 속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유아에게는 오감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당이 많은 음식과 적은 음식의 차이를 놀이로 구분하고,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후 부모/자녀 합동 교육에서는 방울토마토 심기, 저당 토마토소스를 활용한 동물 카나페를 만들어보며 즐겁게 요리 활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식재료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대한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신서영 센터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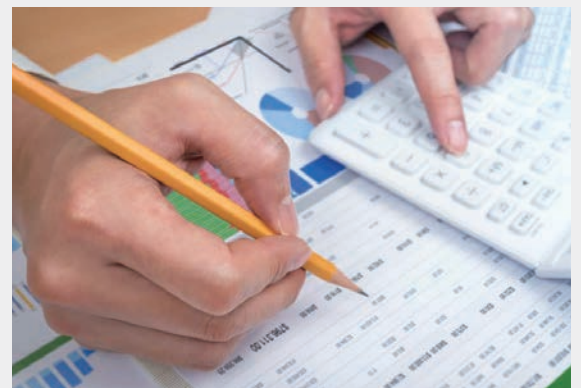
학과 STORY

세무회계학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무회계 전문가 양성

우리 대학 세무회계학과는 지식기반 사회의 흐름에 따라 세무회계 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현장 응용력을 겸비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한다. 세무 및 회계 업무의 정보처리와 전산회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학과의 교육과정은 사회과학 기초부터 전산 실무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회계의 토대가 되는 ▲경제·경영학 기초 분야 ▲세무회계 관련 법률 ▲정보 및 통계 ▲외국어 등을 학습해 기본 자질을 다진 후,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정보처리기술 ▲전산세무회계 ▲ERP 회계 등의 전산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습득한다. 또한, 세무신고 실무와 회계 보고서 작성 능력을 기르고 성숙한 직업윤리 의식을 고취하여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과 협력할 수 있는 인격적



▲ 세무회계학과 홈페이지

리더십을 양성한다.

학생들은 재학 중 ▲전산세무회계 ▲재정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 ▲FAT/TAT ▲ERP 회계 등 필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회계팀 ▲금융기관 ▲세무·회계법인 ▲국세청 및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세무회계 관리자로 성장하고 싶은 학우들에게 세무회계학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동행문이 될 것이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사설

방학을 채운 실무 교육, 지역사회와 나눈 전공 재능

방학 동안 우리 대학이 추진한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실무 중심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상생의 모델을 잘 보여줬다. 단순한 이론 중심의 교육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자산이 되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는 환경 개선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등 실무와 상생을 두 축으로 한 행보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선 학내 재학생 맞춤형 운영팀과 세무회계학과가 공동 주최한 '회계실무 역량 강화 과정'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자산이 되는 국가공인 '회계관리 1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강은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출제 기준에 맞춘 핵심 이론 학습을 비롯해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개인별 피드백까지 밀도 높게 구성됐다. 이를 통해 단기간 시험에 필요한 실전 감각을 다지고, 전공 이해도와 자격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편,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재학생 10명이 참여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은 전공 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행보였다. 학생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랑구 면목동 한길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어둡고 칙칙했던 통로 벽면을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아동들과 구민들의 동행 불편을 해소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방학 동안 추진된 두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자격증 준비와 실무 경험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이 가진 인적·학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를 남겼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꿈을 뒷받침하고 지역 상생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기자칼럼

넘어짐과 쉬었음 사이에 놓인 청년들

편집부 기자 표진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길목, 혹은 치열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시기에 문득 멈춰 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흔히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증가세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구직도, 진학도 아닌 채 그저 쉬고 있다는 청년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쉬었음 청년'이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뜻한다. 이들이 이토록 늘어난 배경에는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바늘구멍 같은 신입 공채 대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고, 눈높이를 낮춰 들어가려 해도 일자리의 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좌절감이 반복된다. 끝없는 스펙 경쟁 속에서 번아웃을 겪은 이들에게 멈춤은 게으름이라기보다, 사회가 안겨준 상처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가깝다.

하지만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언론이나 기성세대는 이들을 향해 눈만 높은 썩어죽이거나 의지가 부족한 낙오자라는 낙인을 찍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속에서 만난 청년들의 속사정은 편견과 완전히 다르다. 한 번 취업 시기를 놓치면 패배자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음 도전조차 두려워 숨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들의 쉼은 나태함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겨우 지탱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기제다.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은 따끔한 질책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다. 청년들에게 무조건 일하라고 책책질하기 전에, 이들이 왜 세상과의 연결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픔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때, 비로소 청년들은 다시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학생칼럼

대학 생활의 성공과 실패란?

AI융합컨텐츠학과 서준호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하게 된다. 좋은 학점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반대로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서 성공과 실패를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입학 후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

이 틀어질 때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며 조금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다면 그것 역시 의미 있는 경험이다. 반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 생활에서의 성공은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얼마나 꾸준히 나아갔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 역시 끝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대학 생활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누군가는 학업에서 성과를 얻고, 누군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는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준으로 자신의 대학 생활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서일만평

"개 똥발에 굴러도 학교가 낫다"

-김아무개-



사회문화

중랑구약, 위기청소년·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과 ‘맞손’



▲ 중랑구약사회와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의 업무협약 체결

서울 중랑구약사회가 중랑경찰서와 위기청소년 및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 피해자와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의약품과 생계 지원금 등을 제공해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약사회는 중랑경찰서가 발굴한 보호·지원 대상자에게 2년간 총 1,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지원의 첫걸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약품 키트 100세트를 중랑경찰서에 전달했다. 키트는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구성됐다. 서은영 회장은 “위기청소년과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뜻깊다”라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과 약사회가 협력해 위기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건강·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나정 기자 najung071107@gmail.com

경제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에 마라탕 및 인공지능 이용료 합류



▲ 소비자물가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대표 항목들

마라탕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체감 물가를 측정하는 새로운 잣대가 된다. 국가데이터처는 가계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5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지표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갱신은 변화된 식문화와 구독 경제를 짚어내는 데 집중했다. 외식 및 생활 분야에서는 ▲마라탕 ▲샐러드 ▲밀키트 ▲스마트워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디지털 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저장 공간 ▲소프트웨어 ▲온라인 쇼핑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료 등이 신규 편입됐다.

반면 가게 지출이 줄어든 ▲땅콩 ▲도라지 ▲부탄가스 ▲싱크대 등 7개 품목은 제외됐다. 무상화가 확대된 유치원 납부금, 보육 시설이용료, 학교 보충 교육비 역시 빠지면서 최종 산출 대상은 455개로 확정됐다.

2025년을 기점으로 정비된 지수는 오는 12월 18일에 발표된다. 개편 항목들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경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과기정통부 공고번호
제2026-0893호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참가신청 2026. **8.18** (화) ~ **10.22** (목)

참가대상 3개 부문: 중등부 / 고등부 / 대학부
(2인 1팀 구성)

신청방법 ICT대연합 홈페이지(www.kfict.or.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kfict1@kfict.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선 토론논제

중등부 **AI와 학습 주도권**
생성형AI 사용 연령 제한, 필요한가?

고등부 **AI 생성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
생성형AI가 생성한 콘텐츠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AI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대학부 **AI 채용 시스템과 기회의 공정성**
AI를 이용한 채용 서류 심사, 받아들여야 할까?

- 대회일정**
- 예선발표 11월 02일(월)
 - 토론교육 11월 07일(토) 14시 현장 교육
 - 8강 및 4강 11월 14일(토) 10시, 현장 토론
 - 결승 및 시상식 11월 21일(토) 14시
- ❖ 세부 일정은 ICT대연합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 예정

시상내역

구분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100만원 (1팀)	150만원 (1팀)	300만원 (1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원장상	50만원 (1팀)	100만원 (1팀)	200만원 (1팀)
한국정보방송통신 대연합 회장상	30만원 (2팀)	50만원 (2팀)	100만원 (2팀)

문의사항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디지털정책협력본부
02-2132-2082, kfict1@kfict.or.kr

특집 1



대학생들의 희망 초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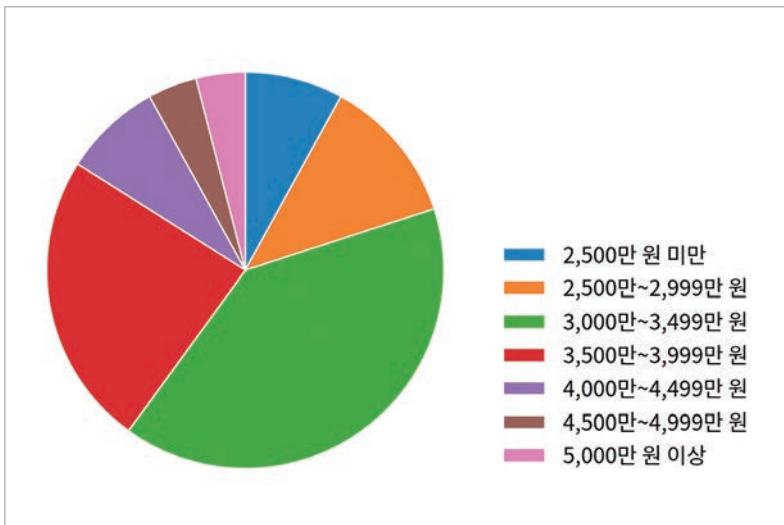
우리 대학 학생들이 희망하는 초봉

취업을 앞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첫 직장은 사회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첫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본 학보사는 학생들의 취업과 경제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희망 초봉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초봉은 3,000만~3,499만 원으로 전체 응답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3,500만~3,999만 원(24%) ▲2,500만~2,999만 원(12%) ▲4,000만~4,499만 원(8%)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500만 원 미만 ▲4,500만~4,999만 원 ▲5,000만 원 이상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희망 초봉은 3,000만 원대에 가장 많이 형성돼 있었다.

반면 실제 취업했을 때 생각하는 최소한의 초봉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3,000만~3,499만 원이 40%로 가장 많았고, ▲2,500만~2,999만 원(32%) ▲3,500만~3,999만 원(20%) ▲2,500만 원 미만(4%) ▲4,000만~4,499만 원(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초봉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초봉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복지 및 근무 환경으로 32%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강도 및 근무시간이 28%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봉 상승 가능성(16%) ▲기업 규모 및 인지도(16%) ▲고용 안정성(8%) 순으로 조사됐다. 높은 연봉만큼 실제 직장 생활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우리 대학 학생들의 희망하는 초봉 결과

특히 초봉이 조금 낮더라도 워라밸이나 복지가 좋은 직장을 선택할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4점과 5점을 선택한 학생이 각각 36%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반면 1점은 8%, 2점은 4%에 그쳤다. 이는 학생들이 취업을 선택할 때 단순히 얼마를 받는가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응답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학생은 희망 초봉으로 3,600만 원을 제시하며 자취 등 개인 생활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다른 학생은 3,500만 원을 희망하며 취업 후 독립과 생활비, 저축 및 기타 지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초봉은 단순히 높은 금액을 받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졸업 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4,000만 원을 희망한 학생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3,000

만 원을 희망한 학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4,200만 원을 희망한 학생은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회사의 초봉 수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희망 금액에는 ▲생활비 ▲저축 ▲독립 ▲전공과 진출 분야 등 각자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받게 되는 월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자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기반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3,000만 원대의 희망 초봉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동시에 복지와 근무 환경,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것은 취업의 기준이 단순히 높은 연봉에서 일과 삶의 균형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 대학 학생들이 바라는 첫 직장은 높은 연봉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급여와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근무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갖춘 직장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첫 직장에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일학보사 홈페이지: 기사제보함
인스타그램: @seoil_press

서일학보 디자인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특집 2

AI의 특징점, 인간의 능력을 확장한다

AI의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 AI의 무한한 능력

인공지능(AI)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글쓰기 ▲번역 ▲이미지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I의 대표적인 장점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오랜 시간 확인해야 하는 자료도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러 자료에서 특징과 패턴을 찾아내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정보 분석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점이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업무를 AI가 처리하면 사람은 단순 작업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문제 해결

이나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AI는 사용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질문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설명의 수준이나 결과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어려운 내용을 다시 설명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성 능력도 AI의 중요한 특징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등의 제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 창작 과정에서도 활용된다.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결과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AI의 결과를 그대로 받

아들이기보다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처를 검토하는 등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AI의 특징점은 인간을 완벽히 대신하는 데 있기보다 ▲정보 처리 ▲반복 업무 ▲맞춤형 지원 ▲창작 보조 등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데 있다. AI의 기능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면 인간은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며, 기술과 인간의 역할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준호 기자 ydd211112@gmail.com

인터뷰 1



안전을 설계하고 세상을 움직이다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 학회장 정현우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 학회장 정현우입니다.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는 실제 엘리베이터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해 엘리베이터의 ▲설계 ▲제어 ▲운행 ▲고장 진단 등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엘리베이터 기술뿐만 아니라 IoT, AI, 디지털트윈과 같은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기사,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같은 관련 기업 및 기관에 취업해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승강기대학교에 갔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교수님과 기업 관계자분들이 모여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토론과 연구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 학회장 정현우

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많은 분이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억에 남았습니다.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의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과자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위해 다 같이 준비하고 긴장하며 설레던 시간이 선배, 동기, 후배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깊고 좋았습니다. 또한 살면서 연예인과 같이 수업을 들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아 잊지 않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과를 소개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학보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학과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의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가인 기자 vvv.n00@gmail.com

인터뷰 2



일상의 체력을 넘어 건강한 미래를 이끌다

스포츠헬스케어학과 학회장 최현서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일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최현서입니다. 1학년 때는 과대표를, 현재는 2학년 학회장으로서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학과 행사와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헬스케어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과는 스포츠와 건강을 바탕으로 ▲운동처방 ▲체력 관리 ▲스포츠지도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학과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통해 사람의 건강과 체력에 맞는 운동을 계획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기르는 학과입니다.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진행했던 여러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학우들과 함께 MT나 체육 관련 행사 등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고 직접 행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행사가 끝난 후 학우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회장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 스포츠헬스케어학과 학회장 최현서

스포츠헬스케어학과의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과 친구들과 함께 수업과 다양한 학과 활동에 참여했던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포츠헬스케어학과는 실기 수업이나 팀 활동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우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헬스케어학과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건강 분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목표와 진로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이 즐겁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학과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